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·대외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4.30.)

-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 생산은 0.3% 증가(전월비)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
 - 그러나,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,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- 지금 세계경제는 “태풍이 잠시 소강상태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습니다.
 -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, 한시상향(50→70%)하여 지급중인 유가연동보조금*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.
 - * 버스·택시·화물차·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, CNG(압축천연가스) 보조금 지급 (경유 1,700원/리터 초과분의 70% (압축천연가스(CNG) 1,330원/m³ 초과분의 50% (183.21원/리터m³ 限)
 -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“친환경 녹색 소비·관광 불업방안”과 “청년뉴딜 추진방안”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우리 소비와,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,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도 가속화해나갈 것입니다.

[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]

- 먼저,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.
- 내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*하는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. “노동이 존중받는 사회”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 - * 정부는 ‘근로자의 날’에서 ‘노동절’로 명칭 복원(‘25.11월) 및 법정공휴일 지정(‘26.4월)
- 특히,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.
-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하여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를* 성실히 하고,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* 공공부문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교섭절차에 임하고, 사용자성이 낮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정협의체 운영

□ 또한, 경사노위를 중심*으로 AI 대전환,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.

*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, 인구구조 변화 특위 등 11개 회의체 구성 → 5월부터 순차 논의

□ 아울러,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'적정임금'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*하겠습니다.

* 최저임금의 118% 수준(26년 254만원)을 적정임금으로 설정

○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'공정수당'*도 지급하겠습니다.

* 계약 만료시 계약기간별 기준금액의 8.5~10% 일시 지급(38.2만원~248.8만원)

[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]

□ 두번째,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.

□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.

○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,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쏠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습니다.

○ 고용허가제는 취업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,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하여 개선하겠습니다.

□ 끝으로, 5월초 연휴기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국내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○ 연휴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철도, 항공,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.

* (철도) 5일간 총 64회(3만 3천석) 증편, (버스) 좌석 부족시 전세버스·예비차 투입 (항공) 20개선 2,580선 운항, 항공사 추가증편 신청시 신속 인허가 지원

○ 또한 연휴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, 국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고 근로자 반값 휴가*도 4만 5천명에게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.

* 근로자가 20만원 여행경비 적립시 기업 및 정부(각 10만원) 매칭 적립

□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